

대륙의 榮華가 깃든 도시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은 중국 여행의 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 오늘날 중국 대륙을 이루는 다양한 층위의 문화가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곳에 도읍을 정했던 왕조가 무려 13개이며 그 기간도 1천 년이 훨씬 넘는다. 그로 인해 죽기 전에 꼭 봐야 한다고 알려진 세계적인 명소가 도심 안팎으로 즐비하다.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병마俑(兵馬俑), 한자 문화의 총체를 일견할 수 있는 비림(碑林),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꽃피던 화청지(華淸池)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중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장방형 성벽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글 · 사진 장성배 기자, 협찬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www.cnto.or.kr)

西安





1 시안 남쪽에 위치한 대안탑북광장(大雁塔北廣場)은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분수 공연이 매일 두 차례 펼쳐진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시원한 분수 쇼를 감상하면 낮 기온이 40℃ 이상인 시안의 여름을 잠시 잊게 된다. 2 당나라 궁녀처럼 꾸민 악사들이 시안 성벽 남문에서 관광객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도 1998년 6월 중국 국빈 방문 시 남문을 통해 시안에 입성했다. 3 대안탑이 위치한 대자은사(大慈恩寺)는 당 고종이 태자로 있을 당시인 648년 어머니 문덕황후를 기리기 위해 중건한 사찰이다.

시안 셴양

(西安咸陽) 국제공항에서 시안 시내까지는 40km 남짓 거리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면 평원에 드문드문 야산이 하나씩 솟아 있다. 황제들이 문헌 능이라는 게 가이드의 설명이다. 공항 인근에만 한나라 황제 9명의 능이 산재해 있다고 한다. 황실의 무덤뿐 아니라 귀족들의 무덤도 즐비하다. 이로 인해 '시안에서 부자가 되려면 땅을 파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청나라 말기부터 문화혁명 시기까지 혼란기를 틈타 도굴되어 시안 밖으로 유출된 유물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물론, 지금은 시안 일대가 문화재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땅을 파다가는 사법처리를 감수해야 한다. 시안 성벽 내에서는 건물 높이까지 제한을 받는다. 현재 진행되는 지하철 공사 역시 문화 유물 보호를 위해 다른 도시보다 훨씬 깊이 땅을 파고 건설하는 중이다.

시안 여행의 워밍업은 성벽에서 시안의 역사는 약 3천 년이다. 관중분지(關中盆地)의 중앙에 해당돼 예부터 이곳을 얻는 지는 천하를 다스린다고 알려져 왔다. 실제로 주나라 무왕을 필두로 13개 왕조의 황제 73명이 이곳에 터를 닦고 중원을 지배했

다. 그중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당나라 때다. 장안(長安)으로 불리던 당대(唐代) 시안의 규모는 동서 9.5km, 남북 8.5km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 장안은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로 가까운 한반도와 왜(倭), 안남(베트남)을 비롯해 멀리 아라비아와 동로마제국과 교류했다. 당시의 유산인 바둑판 모양의 도로 구획 덕분에 시안은 지금도 중국에서 길 찾기가 가장 쉬운 도시로 통한다. 종루(鐘樓)광장을 중심으로 도로가 사통팔달 뻗어 나간다. 현재 남아 있는 시안 성벽은 명나라 때 완성된 것이다. 12m 높이의 두터운 성벽이 동서 4.3km, 남북 2.4km 규모로 조성돼 있다. 둘레 길이가 총 13.4km인 성벽 위에는 4차선 너비의 벽돌길이 나 있는데, 매년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국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 1993년부터 시작된 세계 유일의 성벽 마라톤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수천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다. 또 성벽 위에는 군사방어시설인 적루(敵樓)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돼 있고, 성벽 아래에는 12m 폭의 해자인 호성하(護城河)가 흐르고 있다. 적루와 적루 사이, 성벽과 해자 사이의 간격은 활로 상대를 죽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60m 거리가 유지된다.





The World Capital of Buddhism 시안에서 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법문사(法門寺)는 후한시대 창건된 사찰로 석가모니 진신지골사리(眞身指骨舍利)가 봉안돼 있다. 진신지골사리는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7일간 다비식을 거쳐 남은 손가락뼈를 말한다. 산시성 정부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문사 일대를 세계적인 규모의 불교문화 관광지로 조성 중이다. 현재 박물관, 호텔, 레스토랑 등이 운영된다.



1 시안 시내 회족 거리에서 만난 선사 시대 약기 판매상. 약 6천 년 전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무덤, 생활도구와 장식품 및 약기 등이 대량으로 발굴된 반파(半坡) 유적지는 시안에서 가깝다. 2 시안 성벽 남문 웅성의 모습. 성벽 위에 4차선 너비의 벽돌길이 나 있다. 전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해 돌아볼 수 있다. 3 법문사는 1987년 지하 궁전에서 석가모니 진신지골사리가 발굴돼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실크로드의 유산이 남겨진 도시 시안 시내 풍경은 중국의 여느 도시와 다를 게 없다. 시민들이 공원에서 아침저녁으로 태극권이나 전통춤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차량이 많은 4차선 도로에서도 여유롭게 무단횡단을 한다. 물론, 고속도로가 정체되자 역주행으로 틀게이트까지 돌아가는 운전자와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한 채 만원버스에 앉아 가는 승객을 보면 시안 사람들의 간(肝)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크다는 생각도 든다.

시안은 종종 로마에 비견된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문화권의 중심지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다. 동서양 문명을 잇는 실크로드의 두 기점이 바로 시안과 로마였다. BC 2세기부터 상인들은 낙타에 비단을 싣고 시안에서 출발해 우루무치, 페르시아, 이스탄불을 거쳐 로마에 닿았다. 시안 도심의 회족(回族) 거리도 실크로드의 유산이다. 동서 무역로가 열리면서 다양한 이민족이 중국 문화권으로 들어왔는데, 회족은 8세기 중반 안록산의 난을 계기로 중국 역사에 등장했다. 당나라 현종이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서역에 원군을 요청하자 이슬람 세계에서 군대가 파병된다. 당나라는 난이 평정된 후 돌아가지 않은 아라비아 출신 무슬림들의 정착을 지원했고, 그 후예들이 회족의 뿌리가 되었다.

시안 회족 거리에선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회족 공동체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양고기 꼬치를 비롯한 회족 전통 음식과 고유한 옷차림이 그것이다. 다채로운 향신료가 가미된 갖가지 꼬치류, 주먹만 한 대추야자를 비롯한 이국적인 과일, 살구씨와 복숭아씨가 들어간 기이한 향의 떡을 맛볼 수 있다.

시안 성벽과 종루 광장, 회족 거리를 돌아보았다면 시안 여행의 위명업은 마친 셈이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할 차례다. 진시황릉, 병마용갱, 비림, 화청지 등 찬란한 영화와 이야기를 품은 중국사의 실크로드를 향해 길을 나서야 한다.

고색장연한 도심 풍경과 함께 시안 여행에서는 중국 역사를 장식한 걸물들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은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영정(훗날 진시황이 됨), 당나라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동시에 가져온 현종과 그의 연인 양귀비, 중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시안사변의 두 주인공인 장제스와 장쉐량 등이다. 특히 비석 박물관인 비림에선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필과 문장가를 모두 만나게 된다. 왕희지, 구양순, 안진경, 조맹부, 장욱 등 대가들이 남긴 서법 예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병마용의 용(甬)은 순장(殉葬)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대신해 만든 인형을 뜻한다. 병마용박물관에 전시된 초대형 모조품 도용(1번 사진)과 병마용갱 출토품인 청동거마(2번 사진)의 모습이다.

수천 년 잠에서 깨어난 황제의 친위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와 중국의 황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즉위와 동시에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세 권력의 최정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일이 내세를 위한 안식처 조성이었다. 중국 역대 황제들은 많게는 국가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무덤 건설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시안에서 명멸한 황제가 모두 73명이니 능 역시 그만큼 있어야 맞다. 하지만 현재 시안의 황릉은 72개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인 측천무후(624~705)가 남편인 당 고종과 함께 건릉(乾陵)에 묻혔기 때문이다. 건릉은 시안 서쪽 85km 지점에 위치하는데 2007년 탐측 결과, 지하 궁전 안에 500에 달하는 부장품이 있다고 밝혀졌다. 현재 시안의 황릉 중 발굴된 것은 한나라 경제(景帝)의 무덤인 양릉(陽陵)이 유일하다. 진(秦) 시황제(BC 259~210)의 무덤도 아직 미발굴 상태다.

시안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병마용갱(兵馬俑坑)은 진시황릉 동쪽에 위치한 지하 군영이다. 죽은 황제를 지키기 위해 진흥으로 병사와 군마, 이른바 도용(陶俑)을 빚어 구워 매장한 것이다. 병마용들은 시황제가 멸망시킨 전국시대 6개 나라가 위치한 동쪽을 향해 능름하게 대오를 이루고 있다.

병마용갱은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1976년까지 모두 4개의 갱이 발견됐는데, 그중 4호갱은 완성되기 전에 폐기된 빈 구덩이로 확인됐다. 2호갱과 3호갱은 시험 발굴을 통해 실체만 확인하고 다시 묻어 본격적인 발굴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군사 지휘부의 재현으로 추정되는 3호갱은 고고학적 가치가 1호갱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1호갱은 지난 6월 13일, 20년 만에 발굴이 재개됐다. 발굴 첫날 앞뒤로 나란히 서 있는 사두마차 두 대, 채색 병마용 두 개, 채색 토기 파편, 칠기 목기가 출토됐다.

병마용은 실물을 모델로 해 정교하게 빚어졌다. 사람 생김새가 서로 다르듯 도용의 얼굴도 모두 제각각이다. 눈썹과 손금, 웃고름까지 다르다고 한다. 이미 관광객을 위한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어쩌면 병마용은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 정부와 관광객 모두 진시황릉보다 병마용갱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말이다. R



3, 4 병마용은 진나라의 군대 편제, 무기, 갑옷 등과 함께 헤어스타일까지 알려준다.

I N F O R M A T I O N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복잡다단한 문제다. 그래서 피상적인 이해는 차라리 몰이해만도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양귀비의 남자인 현종을 여색에 빠져 나라를 망친 인물로 단정 짓는 시각도 그중 하나다. 현종은 늘그막에 양귀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당나라 역사상 손꼽히는 치세를 이룩한 인물이었다. 문화, 민생, 국제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일궈내 당나라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현종의 치세를 가리켜 당 태종의 정관의 치(貞觀之治)에 버금가는 개원의 치(開元之治)라 한다. 현종의 예에서 보듯 시안의 역사 인물들(시황제, 양귀비, 측천무후, 장제스 등)의 진면목을 알려면 조금은 면밀한 예습이 필요하다.

교통편 8월 중순 기준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시안 직항편을 각각 주 5회(월, 화, 수, 금, 토), 주 4회(화, 목, 토, 일) 운항한다. 약 2시간 50분 소요된다. 시안 시내의 택시 기본 요금은 6위안이며 전기버스 요금은 1위안이다.

비자 및 환율 30일 단수의 경우 비자 발급 비용은 3만5천 원이며 여행사를 통해야 한다. 발급 소요기간은 4일이며 비명함판 사진 1장이 필요하다. 환율은 8월 중순 기준으로 1위안이 약 180원이다. 시차는 중국 전역이 서울보다 1시간 낫다.

음식 시안은 밀 생산량이 많다 보니 쌀보다 면이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 시안의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면 메뉴가 없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면의 종류도 다양한데, 가는 면은 바늘귀에도 들어갈 정도이고 굵은 면은 허리띠로 써도 될 정도라고 한다. 중국인 특유의 과장이 섞인 표현으로, 그만큼 면 요리가 발달해 있다는 얘기다. 시안 도심 중루광장 인근의 덕발장교자관(德發長餃子館)과 동성상(同盛祥)은 각각 교자연(만두 코스), 양육포막(밀전병을 잘게 뜯어 넣은 양고기탕)으로 이름이 높다. 교자연은 청나라 말기 서태후와 연관이 있고, 양육포막은 명 태조 조광윤의 고사에서 유래한 음식이다.

쇼핑 병마용 모형, 비단 제품, 당삼채 도자기 등이 대표적이다. 어디서나 흥정을 해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이는 시안시안양국제공항 면세점에 예외가 아니다. 비림 박물관 내 제4전시실에서 탁본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 비림에 소장된 비석에서 뜯 글씨, 그림 탁본이 1점당 200위안에 판매된다. 중국의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비싼 편이지만 100% 진품이기에 살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 가볼 만한 곳

비림 비림(碑林, www.beilin-museum.com)은 이름 그대로 비석이 숲을 이루는 곳이다. 그만큼 많은 비석이 한곳에 모여 있다는 얘기다. 공식 명칭은 시안비림박물관(西安碑林博物館)이다. 북송 시대인 1087년 처음 조성됐는데, 중국 내 수많은 비림 중 소장품 규모나 내용 측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평가를 받는다. 7개 전시실에 총 3천여 개의 비석이 소장돼 있는데, 한 점 한 점이 중국 문화의 주요 맥락에 잇닿아 있다. 제1전시실에는 개성석경(開成石經)이 자리해 있다. 개성석경은 당 문종 2년(837)에 만들어진 석각 문헌이다. 114개의 돌판 양면에 사서삼경을 비롯한 주요 경서의 내용 65만여 자를 새겨 넣은 비석 병풍이다. 논어, 시경, 주역, 효경, 예기, 춘추좌사전 등 과거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경서들의 내용이 집대성돼 있다. 인쇄술이 낙후되고 책이 귀하던 시절, 과거 수험생들은 개성석경의 탁본을 떠서 공부했다고 전해진다. 이른바 '돌로 만든 교과서'였던 셈이다.



한양릉 한양릉(漢陽陵)은 시안 일대에 산재한 황제들의 무덤 중 유일하게 발굴된 무덤이다. 한나라 경제의 무덤으로 시안시안양국제공항에서 가깝다. 무덤이 조성된 지하 공간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지하 유적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양릉에서도 황제, 황후와 함께 묻은 수많은 부장품(甬)이 발굴됐는데, 진시황 병마용에 비하면 크기도 작을뿐더러 작품성도 떨어진다. 키 60cm 안팎의 도용에는 본래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혔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전부 삭았다고 한다. 나무로 제작해 도용에 부착시킨 양팔도 모두 부식돼 양릉의 도용은 대부분 팔 없는 나신들이다.



화청지 화청지(華清池, www.hqc.cn)는 시안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온천 관광지이다. 중국 역대 제왕들이 행궁 별장을 지어 휴양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 현종도 이곳에 원림을 조성해 양귀비와 함께 온천욕을 즐겼다고 한다. 정문으로 들어서 건다 보면 양귀비가 현종에게 술을 바치는 장면을 묘사한 거대한 벽화가 나타난다. 양귀비는 각종 약재를 넣은 전용 온천인 해당탕에서 목욕을 해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했다고 한다. 해당탕을 비롯해 연화탕, 상식탕, 성진탕 등 옛 온천 시설에는 모두 이름이 붙어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밤 8시 30분부터 양귀비와 현종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장한가(長恨歌)가 공연된다. 화청지 일대를 무대 배경으로 활용한 초대형 공연으로 1천300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